

전남대병원, 전문의 아닌 일반의 모집으로 충원할 듯

전공의 없는 병원 어떻게 운영하나

전남대병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244명에 대한 사직서를 일괄 수리함에 따라 향후 병원 운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의 현장이탈로 의료공백이 6개월 넘도록 지속되면서 교수 등 의료진의 피로도도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전공의 245명이 공식적으로 결원이 됐기 때문이다. 신규 의료진 모집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이 우세해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남대병원은 사직서를 밝힌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모두 수리함에 따라 향후 일반의(一般醫, General Practitioner)를 모집해 의료공백을 메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의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을 말한다. 개업의 중에서 전문의가 아닌 사람을 말하고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전남대병원은 아직 구체적인 모집인원과 일시까지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전공의를 다시 뽑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 진료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을 지속하겠다는 방침과는 다른 방향이다. 결국 상급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다시 손을 내밀었지만, 전공의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병원측에서는 차라리 사직처리를 하고 복귀를 할 전공의를 모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또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역 상급병원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의 아닌 개업의...전공의 포함 사직서 수리하고 다시 뽑겠다는데 신규 의료진 모집도 쉽지 않아

눈덩이 적자 따른 경영난도 심화 현 의료공백 상황 장기화 우려 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몰릴 듯

우려도 이같은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이 전공의들을 무더기 사직처리한 만큼 병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로 인한 경영난 심화가 걸림돌이다.

지난달까지 총 800억원의 적자가 쌓인 것으로 알려진 전남대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문이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경영난을 버티고 있는 전남대병원은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반의에 비해 수배가 더 비싼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남대병원은 일반의 모집에서도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의료공백 상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공의들이 개원의로 선회하면 내년 3월에 있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지원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전남 상급병원의 의료공백에 따라 광주·전남 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



전남대병원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 처리한 가운데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의 의료진이 의료 현안 등을 이야기하며 병원을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병원의 한 교수는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에서 내쫓아 환자 수용이 어려워 병상을 줄이고 줄어든 병상만큼 중증환자 비율을 늘려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중증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의료개혁이다"며 "한시 빨리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음주 비위’ 전남 현직경찰 징계처분 잇따라

만취해 시민과 폭행시비에 휘말리고, 음주사고를 낸 전남지역 현직 경찰들에 대한 징계가 잇따랐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를 받은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사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지난 6월 20일 새벽 1시 20분께 목포시 상동 거리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부수고 항의하는 차주를 폭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음주사고를 낸 함평경찰서 소속 B 경

감에게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B 경감은 지역 파출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6월 19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B경감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헤어진 불륜 관계 연인에 지속적 스토킹 벌금형 전남지역 공무원 신분 상실 위기

헤어진 불륜 관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50대 전남지역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아 신분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헤어진 연인인 B씨 집으로 찾아가 차량에 협박 쪽지를 남기는 등 2021년 11월경부터 지난 3월 27일까지 20회에 걸쳐 휴대전화와 SNS 등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2019년 10월경 헤어진 뒤 연락

하지 말라고 통보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또 A씨는 지난 4월 1일 접근금지(2호)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호)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B씨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 등의 메시지와 함께 예전에 찍은 사진을 SNS로 보낸 혐의로도 재판에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등을 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은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평소 갈등 빚던 이웃집 불 지르려한 50대 구속

평소 갈등하던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여수경찰은 현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70대 여성 B씨가 사는 이웃집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 있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간섭하는 등 힘들게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B씨는 “간섭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에도 B씨와 갈등을 빚다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20대 음주운전에...70대 보행자 치여 사망

광주서부경찰, 불구속 입건

광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2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27일 2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5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를 뒤인 지난달 29일 숨졌다.

사고 당시 B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자 신호가 꺼졌으며, A씨는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B씨가 숨지면서 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